

요한일서

요한일서 1:1-2:11 (Tape #2633)

요한일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요한이 이 서신을 썼습니까? 1장 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씬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벧전 1:8).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 기쁨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쁨충만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의 그리스도안에 거하는 것과 관련시켰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 15:7,11).

요한복음 16장에서 요한은 기쁨충만을 기도생활 에 관련시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 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16:23-24). 여기서 기쁨충만은 하나님과의 교제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과 관련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안에 거하는 것은 기쁨충만의 삶입니다.

이제 기쁨과 행복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영의 질적상태이며, 반면에 행복은 감정의 질적상태입니다. 행복은 외부환경과 관련되어있기때문에 변하는 것입니다. 모든일들이 잘되어가면, 예를들어 좋은차를 하나가지면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길거리로 차를 몰면서 햇바람을 킁니다. 그러나 어떤생각에 너무 집중한고로 나무를 들이 박았습니다, “이-크” 내행복이 사라졌고 나는 불행합니다. 또 슬픔입니다. 모든것을 아직 확인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변하는 것이고 그것은 갑자기 돌변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할수도 있을것입니다, “오, 지긋지긋한 시간이야, 정말 어떡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나는 빗더미에 앉았고 저들은 내소유를 모두 차압해버렸어.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앉아서 10,000불 짜리 수표를 끊어서 당신에게준다면, ”오, 이거 참종군,” 하고 말할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할것입니다. 당신이 그수표를 가지고 현금으로 바꾸려고 갈때까지는 행복하겠지만 그후에 금방 다시 슬프게될것입니다. 행복은 외부의 환경에따라 변하는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영적인것이며 변하지 않는것입니다. 그것은 변함 없이 한결같습니다. 그것은 기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관이있는것이기때문에 변하지않습니다. 그관계는 변하지않으나 악화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보장된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쁨충만한 기쁨을 가질수있습니다.

요한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짐으로 인해 기쁨이충만하기를 바라기때문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요한은 이 서신을 쓴 두번째 이유를 2장 1절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씬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 이 편지를 쓴목적은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과 죄를 이길 능력을 얻게 하려는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쓴 세번째 이유를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게할 목적으로 이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함이라."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죄에 대하여 자유를 가지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하는것이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목적입니다.

이사야 55장에서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사 55:10-11).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보내실때 그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않는다는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있으며 그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목적을 성취합니다.

그것이 나를 격려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일서를 공부할때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헛되이돌아오지 않을것을 알기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끝낼때쯤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전에 알았던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체험하게될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않기때문에, 당신은 죄를 극복할수있는 새힘을 얻게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될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신목적은 이를것입니다. 요한은 명료하게 이것들이 그가 이서신을 쓴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서신을 공부할때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를 잘 개발하게될것이 기대됩니다.

사람에게는 본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내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말해줄수있을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마음속에 어떤 개념을 갖게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실제로 하는것을 내가 보게되면 말로 하는것보다는 훨씬 더쉽게 그 본을 따를수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시며 요한은 예수님을 우리의 본으로 지적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본이되십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행함에서 우리의 본이시므로 그가 빛가운데 행하신것같이 우리도 빛가운데 행하는것입니다. 그것이 1장 2절에있으며, 그 다음에 2장 6절에서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대로 자기도 행할찌니라." 또 다시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일에 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각 개인의영적생활에 본이 되십니다.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우리가 그를 보는것같이 우리들도 주님처럼 될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나의 순전함의 기준은 그리스도 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다시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라고 합니다. 속사람의 순전함과 의로움이 나의 본이신 그리스도 처럼 순전하고 의로워야합니다.

그런 후에 3장 23절에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들 상호간의 관계에서 본이 되시며 우리들은 그가 주신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해야합니다.

모든것 중에서 결정적 의론은 4장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는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주의 어떠하심같이 우리도 그러하니라.” 그는 우리가 따라야할 본이 되셔야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내자신의 내적삶과 또 다른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본이되십니다.

이제 성경은 스스로 속이는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고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요한은 우리가 우리자신을 속이는것은 가능하며 진리가 우리속에 없기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는것들의 대부분이 우리의 주장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주장한것들은 대응되는 경험의 뒷받침을 해주지않으면효력이 없습니다. 요한일서를 볼때 요한은 사람들이 허위고백을 한다고 말합니다. 1장 6절에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 또는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라고하면.” 이렇게 말하는것은 참좋은것이지만 만일 당신이 하나님과 교제가있다고 하면서 어둡가운데 행하면 당신 자신을 속일뿐만아니라 당신은 진실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지못하면 그는 어두움에 행합니다. 이것에 관하여 속지마십시오. 이점에서 많은사람들이 속고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두움에 행하고있습니다. 그런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 입니다.” 여기에서 “죄” 라는 단어가 단수이며 그것은 원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죄의 근성을 부인하려고합니다. 아시다시피 “내게는 죄성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죄성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 “모든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가 아니라 “모든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입니다. 한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바울은 “전에는 우리도 다른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니” 라고했습니다. 다윗은 “나는 죄중에 태어났다” 고 했습니다.

이 죄성을 부인 하는것은 단지 스스로 속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이 여기에서 말하는것으로 “만일 우리가 죄 없다(죄성이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것이라.” 성경은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임으로 죄를 짓는것이지 내가 지은죄가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내가 죄인임을 증명해줄뿐입니다. 내게 죄성이있기때문에 내가 죄를 짓습니다. 그것은 말도독을 비유로 들수 있겠습니다. 말을 훔쳐서 말도독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것을통해 당신이 말도독인것을 증명할뿐입니다. 만일 당신이 말도독이 아니었다면 그말을 훔칠수없었을것입니다. 말도독이 아닌 사람이 결코 말을 훔칠수없습니다. 그렇게하고자하는것이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당신 속에 그렇게하고싶은 생각이없다면 그렇게 할수가 없습니다. 죄도 죄의본성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부인한다면 나는 나자신을 속이며 진리가 내속에 있지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즉, 죄의뿌리가 열매를 맺은것뿐이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 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사람이 죄를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하셨기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만일 내죄의 뿌리가 열매맺은적이 있다는사실을 부인하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것입니다.

이제 2장 4절은 그가 “내가 저를 아노라” 하고 말합니다. 그렇게말하는것은 훌륭한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 그럼 내가 예수님을 알지.” 그러나 “그가 ‘저를안다’ 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좀더 자세히 공부해봅시다.

6절: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또말하기에 훌륭한 다른한가지입니다. “오,물론 내가 저안에 거하지요.” 말하는것은 놀라운것이지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아닙니다. 내가 진실로 저안에 거하면 저가행한것같아 나도행할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장 20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해.”)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 하는 자니라.” 내가말하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것은 속임수가 될수도있습니다. 나 스스로를 속이게 될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것은 얼마나 듣기에 좋습니까! 그러나 내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거짓말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생활에 이러한 부조리가 얼마나 빈번한지를 볼수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하고 저것을 행합니다. 아니면 이것을 해놓고 저것을 말합니다. 우리교회에 12 명정도의 작은소녀들이있는데 그들은 항상 내게와서 “안녕,척” 하고 인사하는데 이소녀들과 또 소년들이 너무나 예쁘고 그들의 마음도 착하죠. 그중에 2-3살된 한소녀는 자기엄마에게 “나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보고싶어” 라고 말했답니다. 그소녀는 나에 관해 말했으며 나를 하나님 아버지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냐?”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 작은 소녀는 교회에 올때마다 항상 나에게 와서 인사하고 끌어안고 입맞추곤했습니다. 어느날 가족이 주일날 어디에 가야하므로, “오늘 여행을 가야하니 오늘은 교회에 못간다. 교회에 갈수가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소녀는 궁둥이에 손을 대고 하는말이 “제길헐, 나는 교회에 가고싶은데” 라고 했습니다. 모순을 어릴때부터 보여줍니다. 항상 내가 해야할 말을 하는것이아니고, 내가 다른사람처럼 행동하기도하며, 내가행하려는것을 행하지않고 엉뚱한짓을 하기도합니다.

이제 내가 알수있는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알기를 원하시고 또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서신의 일부는 내게 확신을 가져다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알수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수있습니까? 우리가 이 서신을 공부할때 확실한진리를 아는 몇가지 방법이 있음을 발견하게됩니다.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의계명을 지키지아니하면 나는 거짓말쟁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참으로 내가 그를 안다는것을 알수있습니다.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내가 예수안에 있음을 아는것은 그의 사랑이 내삶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의)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것을 어떻게 알수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때문입니다. 성경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것을 증명하려고 할때에 성경은 언제나 십자가를 가리키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말해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일 4:10). 성경은 항상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 3:16). 사랑은 여기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하셨던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것입니다. 이제 3장 19절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어째서 그런가?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내가 행동으로 사랑할때 그것을 통하여 내가 진리에 속하였음을 아는것입니다. 24절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저가 우리안에 거하심을 어떻게 알수있습니까? 성령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진리를 알수있을까요? 4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찌니.” 많은 교회나 종교에서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4장 6절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를 듣는가 아니듣는가에 따라 하나님에 속한사람인지 아닌지 알수있습니다. 4장 12절로 돌아가봅시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어떻게 아느냐구요? 그의 사랑이 우리안에 온전히 이룬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아는지를 어떻게 알까요? 재미있는 서신입니다. 1장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장의 첫구절을 성경의 첫구절과 그리고 요한복음의 첫구절과 함께 비교해보는것은 아주 재미있는 일입니다. 성경의 첫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시다시피 출발점이 있어야지요. 그것은 태초이었던것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이전에 계셨고 항상계셨고 태초에도 계셨습니다. 그것이 얼마전이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상상도 측정도 할수없습니다. 그것을 알아내려다가 미쳐버릴찌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던것입니다. 이제 복음서에 “태초에 말씀(로고스)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 요한은 그의 서신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바 된 자니라
(요일 1:1-2).*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며 이말씀이 나타나신바 되어 우리가 보았고 주목했고 들었으며 우리손으로 만져본바라 고 했습니다.

요한은 다른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분이신지를 알게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것을 듣고있을때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것을 듣고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볼때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보고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졌을때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만지고 있었던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어깨에 손을 얹을때 실제로 하나님을 만지고 있음을 깨달을때 그들에게 무슨일이 생겼겠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내어깨에 손을대시거나 등어리를 두들겨 주실때 하나님이 나를 어루 만지신것이죠.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을 우리가 손을대었고 어루만졌고 귀로 들었으며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지에 관한 미가의 예언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베들레헬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찌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영생은 항상 존재하는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계셨으며 이말씀은 곧 하나님 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4). 영원한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육신이 되셔서 사람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요한은 말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았고 들은것을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바 된 자니라.” 그영생은 시간적 존속기간 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포함됩니다.

한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말하기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일을 하여야 영생, 즉 영원한 삶, 당신에게서 볼수있는 질적인 삶을 얻으리이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난 영생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보았고 또 들은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귄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귄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1:3).*

오늘아침에 추상명사인 코이노니아 (koinonia) 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영어에는 이 헬라 단어 koinonia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어서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어가 함께하는 사람, 영적교섭, 공통적인것, 하나, 교제 등으로 번역되어 있음을 볼수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든것을 공통적으로 (koinonia) 가지고있고 또 가진것을 나누는것을 말합니다.

이 추상적명사가 온 근원이되는 명사는 함께하는사람, 짝 (파트너), 혹은 공동경영 으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이단어는 친구, 우정, 공동경영, 교제, 공통, 하나, 함께하는사람으로 번역되며 이 모든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것, 하나님과 교통하는것, 하나님과 공동으로 모든 것 을 가지는것, 하나님과 공동경영하는것,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것,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것을 말합니다.

공동경영이란 자원을 상호간에 나눠쓰고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하는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것이며 복음의 목적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데려오는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교제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트럼본 (God's Trombone) 이라는 시를 좋아합니다. 그중 한구절에서 하나님이 “나는 외롭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교제하시기위해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의 창조물과 하나가 되신것입니다.

교회안에서도 서로가 코이노니아 의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들은 물질을 통용했으며 무엇이 필요한사람들은 물질을 서로통용하는 교회로 왔습니다. 모든물건들은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활용되지못했습니다. 그것은 게을러서 일하기싫어하는사람들이있어서 남의도움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있었기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상적인 상황을 가졌다면 그것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수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지런하고 이상적인 상황에따라 일할수만있다면, 그리고 우리 의 마음에 성령의 사랑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공산사회가 잘이루어질수있을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진실되게 나누고 관심을 가지고 또 구제한다면 그것은 아름답게 될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가운데 거하는동안에는 아름다운것을 망칩니다. 그래서 그것이 초대교회에서는 이루어지지못했고 실제로 교회가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러한 공산주의를 실험한 결과의 재난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위해 이방인들이 연보를 모았습니다. 그 공산주의는 오늘날의 강압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경건한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안에서 사랑이 동기가되어 자진해서 모든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위한 공통적인 소원으로 시작한것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통치하는 정부로 완전한 정부는 찾아볼수 없을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오셔서 그의 왕국을 건설할때까지는 그런 정부가 생기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왕국은 공의가 실현되는 완전한 정부가 될것입니다. 그때에는 상업이 필요없게 됩니다. 이사야 55장에 의하면 돈도 필요없고 땅에서 나오는 모든 여매를 함께 나누어 먹는 영광스런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 질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씌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1:4).

이 기쁨충만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업자가 되거나 친구가 되거나 친교를 하거나 교제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1:5a).

이것이 근본적으로 요한이 말하는 멧시지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1:5b-6).

우리가 죄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교제할수 없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 5:19-21)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우리 스스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진리를 말하지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저가 빛 가운데 계신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7).

여기에 문장이 헬라어의 현재형으로 되어 있으므로 “계속하여 우리를 모든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번역되어야 하며 내게는 그곳이 행하기에 영광 스러운곳입니다. 예수께서 빛가운데 계시는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계속해서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제,

만일 우리가 죄 없다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8).

그러나 그 반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1:9).

깨끗하게 되는방법은 (죄 가 없다고) 부인하는것이 아닙니다. 용서 받는길은 죄를 부인하거나 숨겨서 되는것이 아닙니다. 잠언에도 이런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 28:13). 죄를 숨기고 덮어버리며 부인하면 단지 자신을 속일뿐입니다. 그러나 죄를 하나님앞에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케 하실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모든” 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얼마나 흑암같이 어두웠거나 비참했든지 상관없이 모든 불의에서 나를 깨끗케 하신다는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모든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찰스 피니가 미국 동부의 한 도시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사와 찰스피니의 부흥운동에 관하여 읽어 보면 지역 사회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음을 알수있습니다. 동부의 여러도시에서 부흥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후에 그 동네에 있는 술집은 단골손님이 다 떨어졌으므로 다 문을 닫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그 도시가 완전히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난것입니다. 여러집회를 가졌는데 어느 한 집회때 교회의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을때 한남자가 그를 세우고 “오늘 저녁 집회후에 이야기 좀할수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피니 가 “예, 기꺼이 만나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계단의 꼭대기에 왔을때 교회의 집사들이 “그 사람 뭘 원하던가요?” 피니 박사는 “그 사람이 교회후에 나와 이야기좀 하자더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라고 피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 도시에서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그는 지긋지긋한 사람이예요. 감히 그사람과 같이 가지마세요. 그 사람이 살인자들을 고용했는데 아직까지 함께 있는게 당신을 해치려는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화 하지마세요.” 예배가 끝난후 집사들이 모여와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과 같이 안가시는거죠?” 그는 “아니요, 같이 가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실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그 사람에게 약속했으니 가야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피니 박사는 그사람을 만나서 도로를 지나 골목으로 가서 어떤건물의 후문에 도달했습니다. 피니가 들어 갔을때 그 사람이 돌아서서 문을 잠근후 “앉으시요” 라고 했습니다. 피니가 앉자 그 사람은 자기의 책상에서 총을 꺼집어 내어 책상위에 놓더니 “당신이 어제 저녁에 말씀하는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피니가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말 하는것을 들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죄에서 깨끗케 하실수 있다고 했습니다.” 피니는 “아니요, 나는 그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잠깐만, 당신은 나를 모르시는구려. 내가 저질은것을 저혀 모르시는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은 술집 뒷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불법 도박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도박하는 기계는 고정되어 있고 나는 많은 사람들로 부터 마자막 한푼까지 착취했으며 그들은 나가서 자살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수 있단말입니까?” 피니는 “내가 말할수 있는건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죄에서 깨끗케 하시리라’ 는 말씀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말하기를 “잠깐만, 그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쪽의 술집도 제 소유입니다. 남자들이 들어와서 술을 마십니다. 그러면 그들의 부인들이 누더기를 입고 아이들과 함께 와서 그들의 남편에게 술좀 팔지말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부인들을 밖으로 끌어내어 쫓고내면서 그들의 남편들이 빈털털이가 되도록 술을 팔고난 후에 쫓아보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실수 있단 말입니까?” 피니는 대답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죄에서 깨끗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또 말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총은 많은 사람들을 죽이것입니다.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죽이도록 여러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주어 사람들을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 해주신단 말입니까?” 그는 대답합니다 “내가 말할수 있는것은 성경이 말하는것뿐입니다. 모든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잠깐만, 저 건너편에 갈색돌집 보이죠? 내게 아내가 있었고 아름다운 아이가 하나 있었읍니다. 16년동안 제 아내에게 고운소리 한번도 한적이 없어요.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죠. 그저께 내 아이가 나에게 쫓아왔는데 그 아이를 화로에 밀어 버렸더니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주실수 있다고 하셨죠?”

그 시점에서 피니는 일어서서 그 사람을 멱사리를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청년, 당신은 내가 이전에 들어보지도 상상도 할수없는 지긋지긋한 이야기를 나에게 했소. 그것이 내게 달려있다면 내가 당신을 용서 할수 있을지 모르겠소. 그러나 내가 말할수있는것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죄에서 깨끗케 해주신다고 하셨소.” 그 사람은 “그것이 제가 알고싶은 전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잠근 문을 열고 “가셔도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해가 떠오를때 그 사람은 술집에서 건너가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가 집에 왔을때 그의 아내는 어린딸과 함께 부엌에 있었으며 그는 위층에 있는 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딸에게 “너의 아버지에게 가서 아침 식사 가 준비되었다고 말해” 라고 했습니다. 그 소녀는 쫓아가서 “아빠, 엄마 가

아침식사 준비 다되었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사랑하는딸아, 오늘아침에는 아침 안먹는다고 엄마에게 말해”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부엌으로 쫓아 내려가서 “엄마, 엄마, 아빠 아침식사 안하시겠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딸이라고 불렀어요”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네가 아마 잘못알아 들은게지. 올라가서 아침식사 준비되었다고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층계다리의 중간쯤 서서 “아빠, 엄마가 아침준비 다 되었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예쁜이, 이리 와봐” 라고 했고 그래서 딸이 그에게 갔을때 그는 자기딸을 그의 무릎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던 어머니도 작은 소녀의 뒤를 딸아 올라가서 문앞에 서서보니 작은딸을 처음으로 그의 무릎에 앉혀서 안고 있었습니다. 그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여보, 이리와 보세요. 어제 저녁에 나는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위대한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죄에서 깨끗케해주신다는것이.” 그는 술집을 닫아 버리고 그 지역의 자선사업가가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 되었습니다.

과거가 어떠했든지 아무리 어둡고 쓸모없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제시합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할것은 죄를 고백하는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케 하실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영광 스러운것입니까! 죄와 흑암의 권세에서 소망없이 길잃은 사람에게 삶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이방인들에게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케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죄와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어 주는것이고 이것은 가장 기쁘고 축복된 특권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 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1:10).

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씌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2:1).

이제 그는 이 서신을 쓴목적에대하여 말하며 그것은 당신을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파괴하는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9장에 “여호와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아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사 59:1-2).

죄의결과는 항상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죄를범하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리고 아담은 죄를 죄를지었고 하나님이 동산에오셔서 그를 불렀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항상 그러하듯, 하나님과의 교제가 죄의결과로 끊어져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려면 죄를 짓지말아야 하는것이 필수조건입니다. 또 요한은 우리에게 죄를 이길 능력을 가질수있다고 기록하고있습니다. 물론, 죄를 이길수있는 능력은 성령께서 우리속에 거하심으로 말미아마 오는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씌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2:1):

대언자란 우리를 위해 중보해주는 중재자 또는 조정관을 말합니다. 우리의 위치에 서서 우리의 대표로 우리의 사건 또는 연유를 변호하시는 분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의로우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앞에 우리의 대언자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히 7:25).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롬 8:34). 디모데에게 쓴글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 (딤후 2:5). 우리가 범죄할때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에게 대언해주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욥이 여러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때 그의 친구들이 그가 당한문제를 이해 시키려고 했습니다. 한친구는, “자네가 하나님앞에 바로서면 모든문제가 해결될걸세.” 욥이대답하기를, “하늘의 별들을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가를 깨달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노라. 어떻게 하나님에게 나아가 나의 사정을 말하랴? 그는 광대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와 하나님과의 간격이 너무커서 그에게 건너갈수가 없구나.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다리를 놓을수있으랴.” 그것이 모든종교의 취약점입니다. 그것은 지구에서 시작하여 무한하신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인간의 노력이기때문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유한한 존재는 아무리 팔을 넓게 벌려도 무한하신 하나님께 도달할수는 없습니다. 모든종교제도는 지구를 기초로 하기때문에 부족합니다. 기독교는 하늘을 기초로 시작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를 찾아 내려오셨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에게 접촉하시려고 손을 뻗으신것입니다. 그렇게하는데엔 문제가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으로서는 무엇이든지 하실수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근거에서 시작하시면 성공적으로 인간을 접촉하실수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 접촉하셨습니다. 그것이 태초에 이루어진일이고 우리가 보았고 주목했으며 듣고 나타난것을 만져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가졌던 문제였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그는 무한하시지만 나는 여기에서 유한한 존재로서 어떻게 나의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앞에 나아갈수있을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가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양척 사이에 손을 엮을 판결자도 없구나.” 다시말하자면, 욥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도 접촉할수있고 인간에게도 접촉할수있는분이 중간에 있어야 한다는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분이 없다고 외쳤습니다. 내가 여기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은 전혀없습니다. 이제 욥은 양척에 손을 엮을 판결자를 위해 울부짖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분이시며 한분이신 중보자 이시며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도 접촉하실수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계셨으며 그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의 몸을 입어 인간이되셨으며 사람들에게 나아가셨고 그들을 어루만졌습니다. 그의손을 양척에 놓으신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을때 우리에게겐 대언자 가 있으니 바로 의로우신 예수그리스도시니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2:2a)

혹은 그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하기위하여 값을 치루신분이시며 우리의 죄뿐만아니라 온세상의죄를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인류역사상의 모든 사람의 모든죄 에대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의죽음에서 용서받지못한죄는 하나도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마 12:31-32). 그것은 예수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며 예수그리스도가 당신의 죄에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성령의 증거를 거절하는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요 3:17-19). 우리가 하나님앞에설때 그것이 우리자신이 대답해야할 유일한 질문일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일뿐만 아니라 온세상의죄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답해야할 한가지 유일한죄는 빛에 나아오지않는것이요 하나님이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교제를 거절하는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죄입니다. 이것은 정죄로서 빛이 세상에 왔으되 그들이 빛에 나아오지 아니함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악한일을 일일이 조사하지않으실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야한다면 단한가지 문제는 당신이 예수그리스도를 거절한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을 거절한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으며 우리의 죄 뿐만아니라 온세상의죄를 위한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2:3).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요 14:21). 계명을 가지는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하는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롬 2:13).

예수께서 말씀 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 라”(요 13:34-35). 나는 이렇게 말할수있습니다, “그래 나도 계명을 가지고 있어.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 그리고도 모두를 미워합니다. 계명을 가진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것을 어떻게 알수있습니까? 내가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알수있습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2:4).

내가 예수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참으로 그것을 믿는다면 삶의 형태와 양상이 달라질것입니다. 실제로 믿지않으면서도 믿는다고 말만할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믿지않으면서 사람들로하여금 내가 믿는것같이 생각하도록 하여 사람들을 속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나의 행동에 나타납니다. 내가 빛을 가지고 있으면 어두움가운데 행할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안에 있는줄을 아노라 (2:5).

기본적으로 모든계명이 이것으로 귀착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사랑하라. 사도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을 가르쳤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 5:23). 모든것이 사랑으로 귀착 되며 먼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 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하고 또 행하였으면 모든것을 잘 지키신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주님이 계명을 말씀하실때 하신 말씀 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라는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를 행하지 않으면 다른것도 할수없습니다. 그것은 함께 이루어 지는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 하는자 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형제를 미워하면 보이지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수있겠습니까? 모든것이 사랑안에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내겐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건데 무엇이 그렇게 힘이듭니까?” 당신이 보시다시피 “...을 하지말라” 는것은 결국 사랑에 귀착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사람을 사랑 한다면 그들에게 거짓말 하지 않을것이며 그들의 물건을 훔치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면 훔치지말라 또 거짓증거 하지 말라 는것은 필요 없는 말일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그를 공경하며 그의 길을 지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그에게 맡길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룰때 열개 또는 전체 목록을 지키려고 애쓰지말고 단지 두개만 다루십시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간단해 집니다.

어떻게 더럽고 비천한 인간을 사랑할수있습니까? 나는 할수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 하십니다. 그래서 나자신을 그에게 위탁할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들을 사랑할수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이 내안에 계실때 맺는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실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안에서 온전케 되는것이며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의 막바지에 완전히 다다르기까지는 이루어 지지않습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습니다. 내자신이 내유익을 찾고 내것과 내영토를 주장하며 내영토를 줄을그어놓고 지나가지 못하게 막는 내자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속에 온전케 되지아니한 증거입니다. 다른사람이 내영토에 침범하는 순간 무엇이 닥아올지 알라, 당신이 내게 그렇게 할때 두고 보라. 이렇게 하는것은 나자신에게 너무 집착해서 내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까지 온전케 되지않은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면 될수록 자아집중의 삶이 점점더 줄어들게 됩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대로 자기도 행할찌니라 (2:6).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십니다. 우리가 그의 삶을 살펴보고 공부해야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 11:28-30). 그에게서 배우고 그를 공부해야하는 이유는 저안에 거하는자는 그가 행한대로 행해야하기때문입니다. 나의 생활에서 남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주어야합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더라” 는 말씀을 신약성경에서 몇번이나 보았습니까?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실때마다 항상 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셔서 도와주도록 그의 마음이 움직인것입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한형제를 보고도 마음문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속에 있다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가 행하신것처럼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사람들의 연약함과 병에 대하여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인것처럼 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 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 이니라 (2:7-11).

어두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움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것이 무엇입니까?

미워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기분나쁘게 만들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견딜수 없어. 정말미워.”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당신이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있습니다. 빛가운데 행한다고 말할찌 모르나 당신 자신을 속이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장님이고 비틀거리면서 걸어가고 있지만 자신이 가는길을 볼수없습니다. 어두움은 당신의 눈을 가리워 보지못하게 합니다. 미움처럼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사람을 향하여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차 있을때 우리는 거기에있는 가치와 좋은점을 보지못하고 보려고도 하지않습니다.

사랑은 빛과 같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은 비틀거리지 아니합니다. 사랑이 길을 밝혀줍니다. 이것이 복음전체의 기반이고 모든 복음이 사랑의 개념으로 요약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요한이 말한것과 같이 그의계명은 무거운것이 아니며 오히려 놀랍도록 좋은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것은 건전하고 사람들을 미워하는것은 아주 불건전합니다. 미움과 증오는 우리의 몸을 파괴하는 화학물질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사랑은 당신얼굴에 빛이 나게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것을? 그들의 선에 엔돌핀이라는 화학물질을 만들어 냄으로써 사랑할때 얼굴에 광채가 나는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면 화학물질이 활력소를 삼켜버려서 피부에 주름살이 생기고 보기에도 흉칙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간단한 사랑의 교훈을 배워야겠습니다.

다음 공부에서 우리는 요한이 아이들과 아버들과 청년들에게쓴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이장의 중간에서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속에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것처럼 우리들도 행하며 그가 반응하신것처럼 반응하게하시고 그가 사랑하신것처럼 우리들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아니라 진실과 행동으로 하도록 하옵소서. 그럼으로 우리의 구세주를 세상에 보여줄수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